

Thematic Radar

Ep. 17 수출의존도 낮은 인도의 재부상

- 인도 증시는 최근 관세 불확실성에도 낮은 수출의존도와 내수 중심 경제 구조의 영향으로 안정적인 성과 유지
-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제조업 발전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
-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진 점도 긍정적. 현재 니프티 50의 12MF PER은 10년 평균(18.5x) 수준

인도 주식시장은 최근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한 고변동성 국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니프티 50 지수는 4월 MTD로 +2.6% 상승하며 S&P500(-8.1%), 항셍테크(-9.4%)에 비해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니프티 50 지수는 인도 대표 대형주 50개로 구성되며, 금융(38.3%), 정보기술(10.7%), 자유소비재(10.6%), 에너지(9.7%), 필수소비재(7.1%)의 비중이 높다. 상대적으로 내수 비중이 높은 업종들이다.

GDP 대비 총 수출액 기준의 수출의존도를 보면, 인도는 11.5%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다. 낮은 무역의존도는 관세 불확실성이나 미중 무역 분쟁과 같은 외부 교역 리스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에서 인도 증시가 매력적인 대체 투자처로 부각될 수 있는 요인이다. 실제로 2018~19년 미중 무역 전쟁 당시, 한국, 독일, 멕시코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증시 대비 인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인도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 2018년 이후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중국에서 인도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Apple의 경우 인도 내 iPhone 생산 비중을 빠르게 확대해 2024년 기준 전체 생산량의 약 14%를 인도에서 조달하고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2020년부터 생산연계 인센티브(PLI) 정책을 통해 핵심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3월 전자 부품 제조를 촉진하기 위한 2,300억 루피(약 27억 달러) 규모의 계획을 추가로 승인했다. 이러한 흐름은 내수 기반의 성장세에 제조업의 발전이 더해지면서 인도의 6~7%대 안정적 고성장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24년 말 이후 인도 증시가 조정을 받으며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된 점도 긍정적이다. 현재 니프티50의 12MF PER은 10년 평균 수준(18.5x)까지 내려왔다. 낮아진 밸류에이션 부담과 낮은 수출의존도, 공급망 재편 수혜의 인도 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일 시점이다. 특히 인도 주식시장 전반에 투자할 수 있는 INDY(iShares India 50 ETF)를 통한 접근이 유의미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림 1. 니프티 50 지수 업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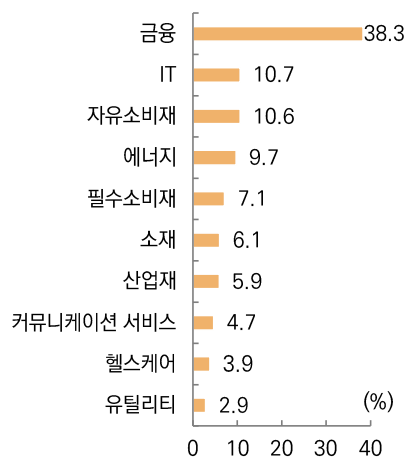


그림 2. 주요국 GDP 대비 수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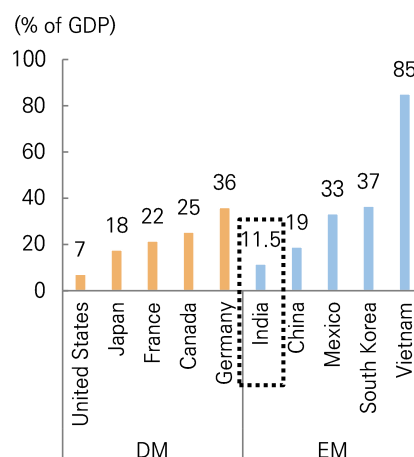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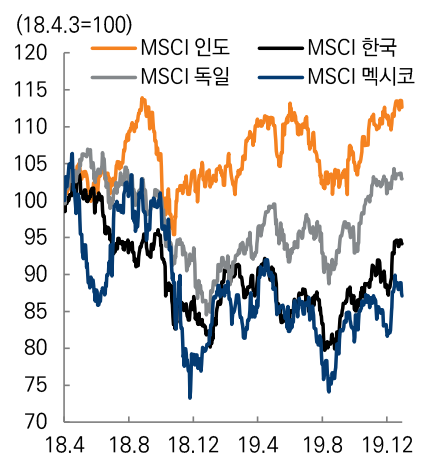


그림 3. 2018 미중 무역 분쟁 증시 흐름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